

저널리즘 관점에서 본 시민 저널리즘

최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
- 미 뉴욕주립대 언론학 박사
- 뉴욕주립대 초빙교수 및 한국외대 언론정보연구 소장
- 현 사이버외국어대 학장
- 저서 및 논문 : 『시민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시민 저널리즘의 일상적 실천에 관한 연구』 외 다수

I. 들어가면서

‘시민 저널리즘’은 저널리즘 프로세스에서 소외된 일반 독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복원하고자 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 저널리즘 운동은 최대 후원기관인 ‘퓨 센터’(Pew Center)의 역할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저널리즘의 지평을 열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민 저널리즘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은 이제 굳이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명칭이 없어도 많은 언론들, 특히 시민 저널리즘을 반대하는 언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편집인 협회(APNE)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편집인들은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기능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자들을 민주주의 형성 과정 속에 불러들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시민 저널리즘의 목표

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Campaign Study Group, 2001).

한편 90년대 들어서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도입으로 인해 저널리즘 환경이 급변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최고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실천 가능성은 언론계 및 학계의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자연스럽게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과도 맞물리면서 미래 저널리즘의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민 저널리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뉴스를 창출해가는 것은 언론사가 이른바 게이트키퍼의 과정을 통해 아젠다(agenda)를 형성해 가는 기존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접근이며 저널리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 저널리즘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의 개념을 살펴보고 다양한 실천요소들을 점검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실천되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의 모델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저널리즘의

시민 저널리즘의 목표와 실천 방법은
시민을 참여와 토론의 장에 초대해 저널리즘
프로세스의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본질적 가치 등 시민 저널리즘과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한다.

II. 시민 저널리즘이란?

시민 저널리즘 운동은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에 실망한 일부 학자와 언론인들에 의해 처음 주도되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공공·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면서 결국 최악의 선거 보도로 이어진 것에 대한 현직 언론인과 학자들의 자정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시민 저널리즘은 뚜렷하게 합의된 개념 정의가 부족한 데다 시민 저널리즘 자체가 언론사의 경영적 측면과 언론 운동적 측면 그리고 공중과 언론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쟁 등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개념과 성격을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시민 저널리즘을 실행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시민 저널리즘의 개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Merritt, 1997).

시민 저널리즘은 연구자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civic journalism), '공공 저널리즘'(public journalism), '시민 참여 저널리즘', '공공서비스 저널리즘', '공동체 저널리즘', '시티즌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공공 저널리즘 운동의 창시자로 불리는 Rosen과 Merritt는 공공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으며, Fouhy는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특히 Rosen은

시민 저널리즘보다 공공 저널리즘을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접근한다. 한편 Chaffe와 McDevitt은 공공 저널리즘은 뉴스 제작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에 시민 저널리즘은 그러한 뉴스 제작으로 인해 얻어지는 변화된 시민들의 공공생활을 염두에 둔 광의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civic journalism은 시민 저널리즘, public journalism은 공공 저널리즘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계에서는 시민 저널리즘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시티즌, 즉 시민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간 '시티즌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이란 개념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요사이 새로운 지식사전의 하나로 떠오르는 Wikipedia¹⁾에 따르면 citizen journalism을 "뉴스와 정보의 수집(collecting), 기사화(reporting), 분석(analyzing) 및 배포(disseminating)에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들(citizens)의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참여 저널리즘'(participatory journalism)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한다. 기존 시민 저널리즘이 언론사에 의해 주도되는 운동이라면 시티즌 저널리즘은 그야말로 시민이 주도하는 실천이라는 데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념상의 혼재에도 불구하고 시민 저널리즘, 공공 저널리즘 혹은 시티즌 저널리즘은 모두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즉 공중을 토론의 장(매체)으로 불러들여 일반 시민들의 공공 참여와 토론의 폭을 넓히고 그들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민주

1) 웹을 기반으로 하는 무료 백과사전.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며 백과사전의 내용이 사용자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Wiki site를 기반으로 하며 wiki의 내용이 사용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수정되고 보완되듯이 wikipedia 역시 이러한 부분을 최고의 특징으로 한다. "an global and multilingual Web-based cooperative free-content encyclopedia. It exists as a wiki, a type of website that allows visitors to edit its content" (google.com)

주의의 실천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저널리즘 프로세스에서 소외되었던 일반 시민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끌어들이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을 뉴스원으로 이용한다든가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의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갈등 기사를 회피하고, 또 공공포럼이나 다양한 미팅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은 이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Ⅲ. 시민 저널리즘 실천의 네 요소

시민 저널리즘의 목표와 실천방법은 환경과 시기에 따라 변화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저널리즘의 프로세스에서 제외된 일반 시민을 참여(participate)와 토론(debate)의 장에 초대함으로써 저널리즘 프로세스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민 저널리즘 실천운동과 관련된 하부 실천방법 혹은 요소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Choi(2004)는 기존 시민 저널리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여 시민 저널리즘의 핵심요소를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로 접근한다.

첫째, 민주화(democratizing).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핵심요소이다. 시민 저널리즘의 전제조건은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언론이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 저널리즘의 환경 하에서는 일반 시민을 저널리즘 실천 과정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 혹은 관련 엘리트만이 아닌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뉴스원화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관급기사의 남용을 피하고 또한 지역 뉴스는 해당 지역 신문사의 내부 필진에 의해 쓰여 지는 것이 지역 관련 기사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둘째, 공통의 전제(common grounds). 공통 전제의 주요 요소로서 핵심가치(core value)의 내재화를 들 수 있다. 핵심가치란 이상, 도덕, 가치체계 등 흔히 기사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기사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내재적인 요소를 의미한다(Merritt, 1995).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에 따른 국내 영향에 관한 기사의 흐름은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이상이나 가치체계 등에 따라 상이한 시각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등의 신념이 기사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사가 쓰여 지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국내 농민들이 입을 타격 등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통해 기사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 기사의 내용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알려주는 이른바 ‘공공의 언어’(public language)로 탈바꿈하게 된다(Selber, 2001). 독자들에게 기사 속에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알려줌으로써 기사는 이슈와 관련된 가치들의 명확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기사는 특정 문제점의 근저에 깔려있는 원인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좀 더 이슈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슈관련 정보(thematic information)는 이슈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맥락의 틀(contextual framework)을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것은 고립되고 파편화된 내용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신문 기사가 일반 개인들의 문제와 그것들을 야기하는 사회적 원인을 연결시켜주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공공담론의 주변화(trivialization) 정도로 밖에 그 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Iyengar, 1991).

셋째, 해결책(solutions). 시민 저널리스트들은 기사

시민 저널리즘 자체가 매우 다양한
성격 지녀 특정 시민 저널리즘 모델로
정형화하기는 쉽지 않아

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자들에게 대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는 곧 독자들에게 문제점이 야기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공적인 사례를 곁들임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 확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넷째,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communication systems). 신문은 독자들과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자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공간 안에서 일반 독자들이 민주주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탈바꿈하도록 가능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제를 제공해야 한다.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제의 예로는 시민의 주요 아젠다를 알아보는 여론조사, 시민들이 궁금해 하며 토론하고자 하는 이슈들을 알아낼 수 있는 포커스 그룹,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공공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회 모임이나 공개 포럼 등을 들 수 있다.

IV. 시민 저널리즘의 국내·외 실천모델

시민 저널리즘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 모델이라 할 수 있는 Aday(1999)와 Kurpius(2000)의 모델을 각각 살펴보고, 이와 함께 새로운 시민 저널리즘의 개념으로 최근 떠오르는 시티즌 저널리즘(Outing, 2005)의 11 단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Aday에 따르면 시민 저널리즘은 실천 정도에 따라

동반자 모델(Prominent Partnership Model), 권력이양 모델(Enhanced Empowerment Model), 정보제공자 모델(Integrated Information Provider Model) 등 3개 모델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인 동반자 모델은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과는 달리 기사에 1인칭 혹은 2인칭 화법을 사용해 언론을 일반 시민과 동일한 위치에 두면서 지면의 많은 양을 할애해 거의 전적으로 시민 중심적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장 야심적인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다. 두 번째 유형인 권력이양 모델은 정부 관료 보다는 시민에 초점을 맞추는 시민 중심적 보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론을 시민의 동반자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사에 3인칭 화법을 사용해 언론과 시민 간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자 모델과 차별화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인 정보제공자 모델은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여전히 정부 관료 위주의 보도를 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을 답습하고 있는 최하위 단계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다.

한편 Kurpius(2000)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한 탐색적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 운동을 통합(integrated) 모델, 프로젝트(special projects) 모델, 퍼블리시티(publicity) 모델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통합 모델은 시민 저널리즘을 일상적인 보도 과정에 완전 통합시킴으로써 정기적인 편집회의를 통해 일상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모델은 수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국은 극히 드물다. 두 번째인 프로젝트 모델은 프로젝트별

로 시민 저널리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통합 모델과 차별화된다. 프로젝트 모델은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 혹은 1년 가까이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도 있어 방송국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 세 번째 모델인 퍼블리시티 모델은 마케팅 혹은 홍보의 방편으로 수용자 혹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민 저널리즘을 이용하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다. 그 사례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주로 홍보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퍼블리시티 모델은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시민 저널리즘 비판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민 저널리즘 모델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Kurpius(2000)의 지적처럼 시민 저널리즘 자체가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 간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특정 모델로 정형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터넷 신문, 예를 들면 오마이뉴스를 Aday(1999)의 이론에 따라 분류한다면 동반자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언론과 시민 간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권력이양 모델이나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을 답습하고 있는 최하위 단계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인 정보제공자 모델과는 달리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 시민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언론을 일반 시민과 동일한 위치에 두면서 지면의 많은 양을 할애해 시민 중심적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반자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Kurpius(2000)의 분류 기준에서도 역시 오마이뉴스는 일상적인 보도 과정에 시민 저널리즘을 완전 통합시킨 통합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Outing(2005)은 이른바 시티즌 저널리즘이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을 11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상에서의 실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일반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Opening up to public comment)

일반 기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비평, 칭찬 등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기자와 시민간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터넷 댓글이 대표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댓글에서 생기는 부작용(욕설이나 비방 등) 때문에 미국 신문의 경우 중재자가 없는 경우에는 댓글달기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댓글달기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공되는 ZDnet.com 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 시민 기여 제도 (The citizen add-on reporter)

기사의 일정부분을 시민의 기여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단순한 기사에 대한 코멘트나 인터뷰가 아닌 기사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일반 시민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구한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해당 기사 옆에 기사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기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정보를 첨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 단순한 하나의 사건기사가 하나의 심층기사로 변모될 가능성을 확보한다. 모든 기사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기사 관련 이슈의 심층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오픈 소스 리포팅 (open-source reporting)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상에서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과 관련,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을 11단계로 나눌 수 있어

이른바 참여 저널리즘(participatory journalism) 혹은 오픈 소스 저널리즘(open-source journalism)의 일종으로 기사의 작성에 있어 해당 주제에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는 시민이 참여하여 기사의 깊이와 폭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진 공인과의 인터뷰가 있을 때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독자에게 공지하여 예상 질문을 미리 받고 인터뷰를 실시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다. 혹은 인터넷에 기사의 초고를 올린 후 독자의 피드백을 통해 기사의 질을 높이고 이것을 다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버전으로 재생산한다.

수준을 넘어서 뉴스룸의 내부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야말로 뉴스룸 프로세스의 투명성(news organization transparency)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편집자가 기사 작성의 전 과정을 자신 혹은 신문사의 블로그 사이트에 올려 시민으로 하여금 기사 작성의 배경을 판단하게 한다. 블로그 환경 속에서 저널리즘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통해 기존 저널리즘의 옴부즈맨 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확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pokesmanReview.com의 “News is a Conversation” 블로그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4. 시민 블로그
(The citizen bloghouse)

블로그를 저널리즘의 기제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블로그를 통해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버를 제공하는 형태에서부터 기자의 블로그에 시민들을 초청함으로써 블로그 내에서의 기사의 질을 높이는 형식이다. 그러나 모든 블로그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시민 혹은 독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블로그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개인적 신변잡기 위주로 내용이 채워지기 때문에 저널리즘 측면에서의 블로그 활용에 있어 제한적이다.

6. 독립 시티즌 저널리즘 I
(The stand-alone citizen-journalism site: Edited version)

기존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확장된 경우가 아닌 별도의 뉴스 기관이 새롭게 탄생한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시민 혹은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탄생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지역뉴스(local news)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물론 이러한 지역뉴스 중심의 기사는 시민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의 대다수 독립 인터넷신문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5. 뉴스룸 프로세스의 투명성
(Newsroom citizen 'transparency' blog)

단순히 블로그에 들러 기사를 읽고 피드백을 주는

7. 독립 시티즌 저널리즘 II
(The stand-alone citizen-journalism site: Unedited version)

전술한 유형의 경우 뉴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비해 이 경우에는

그런 과정조차 없는 경우이다. 모든 사람의 말할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일반 독자나 시민이 경고를 할 수 있는 기제(예를 들면, Report Misconduct 버튼)를 확보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집자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8. 인쇄판 추가

(Add a print edition)

전술한 유형 6과 7에서 만들어진 기사를 인쇄버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혹은 좀 더 자주 일간지나 주간지의 형태로 함께 보급하는 것이다. 유형 6과 7에서 포함된 기사 중에서 엄선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무가지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온라인버전과 함께 제공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콜로라도 <The Daily Camera>의 온라인 버전 “MyTown” 혹은 텍사스 <The Dallas Morning News>의 온라인 버전 “Neighbors”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9.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합

(The hybrid: Pro + citizen journalism)

전통적인 저널리즘과 순수 시민 저널리즘이 합쳐진 상태이다. 오마이뉴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시민기자와 기존 언론의 전문기자가 함께 기사의 내용을 채워간다. 70퍼센트 정도의 기사가 시민기자에 의해 작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게의 추는 분명히 시민 쪽에 넘어가 있다. 물론 시민기자에 의해 작성되는 모든 기사가 실제 기사화되는 것은 아니며 채택된 기사의 경우 약간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10. 한 지붕 아래서의 협업

(Integrating citizen and pro journalism under one roof)

이 유형은 아직까지 실천되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공동으로 그야말로 한 지붕에 아래서 하나의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유형 9의 경우 전문기자와 시민이 뉴스를 만드나 각각의 기사를 작성하는 형태이고, 유형 10은 하나의 주제를 같이 고민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정치기사이건 영화기사이건 전문기자와 일반 시민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사를 쓰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사작성은 미래 저널리즘의 모습이 “강연(lecture)이 아니라 대화(conversation)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Gillmore, 2004)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1. 위키 저널리즘

(Wiki journalism: Where the readers are editors)

이 유형은 시티즌 저널리즘의 마지막 단계이며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독자가 편집자가 되는 환경이다. 대표적인 예로 WikiNews 사이트를 들 수 있다. 이용자들이 만들어가는 지식검색 사전인 Wikipedia에서 출발한 WikiNews는 이용자가 기존의 정보와 지식을 수정하고 덧붙이면서 지식 세계를 넓혀가는 Wikipedia의 환경처럼 하나의 뉴스에 대해 독자가 수정과 첨가를 할 수 있는 형태이다. 물론 현재의 전통적인 저널리즘 환경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진실을 추구한다는 이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환경이다.

V. 시민 저널리즘의 쟁점과 과제

시민 저널리즘은 여전히 많은 한계와 해결과제 안고 있어

1. 태생적 한계

전술한 것처럼 시민 저널리즘은 80년 대 말 미국 대선보도에 염증을 느낀 언론인과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와 동시에 시민 저널리즘 운동은 독자수의 격감에 따른 수익의 감소라는 위기감에 몰린 신문사 경영진들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고 신문 산업의 방향을 전환시켜 보려는 의지와 맞물리면서 언론 기업 혹은 언론 관련 재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당시 위축되어 가는 신문 산업의 돌파구로서 시민 저널리즘은 Batten이나 Gardner 등 거대 미디어 그룹 사주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Knight-Ridder의 회장 Batten은 Knight-Ridder 재단을 통해 Rosen의 '공공생활과 언론에 관한 프로젝트(PPLP)'를 구축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면서 시민 저널리즘의 적극적인 후원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Batten의 지원 하에 1992년에 설립된 PPLP는 시민 저널리즘과 관련된 인사들이 모여 시민 저널리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토의를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1993년에는 시민 저널리즘을 위한 퓨 센터(PCCJ: Pew Center for Civic Journalism)가 PPLP에 동참하면서 퓨 센터를 통해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의 돈이 투입되는 등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됐다(Robertson, 2000).

이와 같이 시민 저널리즘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퓨 센터라고 할 수 있다. 언론과는 관련이 없는 석유 회사 상속인으로부터 나온 재원으로 설립된 퓨 센터의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는 사실상 시민 저널리즘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93년 퓨 센터

가 설립된 후 필라델피아의 Citizen Voices, 시애틀의 Front Porch Forum 등 100여 건이 훨씬 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신문에서 시작한 시민 저널리즘 운동은 방송으로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이윽고 신문과 방송이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시민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가치가 초기의 소수 언론인과 학자만이 아닌 많은 언론인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된 것도 이러한 프로젝트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 저널리즘 비판론자들은 이와 같은 프로젝트 재원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며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은 다름 아닌 재정적 수익을 얻기 위한 알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Downie는 시민 저널리즘을 판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민 저널리즘의 이러한 측면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Richards, 2000). Dennis 또한 프로젝트의 스폰서 배경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건전한 의도에 의해 실천되는 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이론과 실천상의 괴리

시민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실험으로 수많은 변인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또한 변화의 인과 관계를 측정하기도 어렵다(Chaffee and McDevitt, 1999). 물론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할 수 없듯이 시민 저널리즘

의 실천 가능성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과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시민들을 어떻게 저널리즘의 프로세스에 편입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신문에서 시작하여 방송분야로까지 퍼진 시민 저널리즘 운동의 최대 난제는 바로 제한된 지면과 방송시간 안에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시민 저널리즘의 이론적 논의가 실제 언론 환경에서 수용되기 쉽지는 않다는 점은 시민 저널리즘의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시민 저널리즘 운동의 요소로서 논의되었던 핵심가치의 내재화나 해결책 혹은 성공스토리의 제시 등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여겨진다. 또한 속보성을 근간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뉴스 제작에 있어 참여와 토론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제가 수시로 이용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시민 저널리즘 관련 프로젝트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으며, 그러한 운동을 통해 실제로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켰거나 독자의 수를 늘렸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시민 저널리즘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시민 저널리즘 신문 중에 하나인 위싱턴 <Wichita Eagle>의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의 유효성에 관해 조사를 한 McMillan, et. al.(199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Wichita Eagle>이 1990년 시민 저널리즘을 도입한 이후 뉴스 보도에 있어 일반 시민의 저널리즘 프로세스에의 참여도가 도입 이전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 저널리즘 운동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Thames(1998)도 시민 저널리즘 신문인 노스캐롤라이나 <Charlotte Observer>가 실시한 1996년

의 'Your Voice, Your Vote'라는 캠페인을 분석한 결과 시민 저널리즘의 실효성을 희석시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론자 가운데 한 사람인 Gartner는 시민 저널리즘을 '속임수(gimmick)'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절하하면서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들이 보여주고 있는 피상적인 결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민 저널리즘이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공중에게 언론의 독립성을 넘겨줬다고 비판한다(Grimes, 1997).

단발성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이 상시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커다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Blazier & Lemert(2000), Choi(2004)] 결과에 따르면 시민 저널리즘의 일상적인 실천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자들의 제한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에서의 성공이 일상적인 실천과 활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종이신문의 환경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면이나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인터넷의 환경에서도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결과들이 나왔다(Choi, 2004). 물론 인터넷 환경이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언론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 저널리즘의 기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감에 주목하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신문이 갖고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시민 저널리즘의 세계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3. 뉴스 가치와 저널리즘의 본질에 관한 문제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으로 인한 저널리즘의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논

참여와 토론 통해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시민 저널리즘의
이상은 미래 저널리즘 환경에서도 유효

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말 시민 저널리즘 운동을 시작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온라인 저널리즘의 확산, 2000년대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 특히 뉴스가치에 대해 논의가 다시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뉴스가치는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뉴스가치를 단일한 개념으로 쉽게 정의내리기가 어려운 것은 뉴스라는 것 자체가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slippery concept)이기 때문이기도 하다(Hall, 1981). 매우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뉴스가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4개 요소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다: 일탈(deviance), 저명성(prominence), 선정성(sensationalism), 갈등(conflict)(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2).

이러한 4가지 뉴스가치의 유형들은 그것이 규범적인 것이 되었건 병리학적인 것이 되었건 간에 보통, 평균,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그 무엇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평범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 무엇, 즉 일탈이 바로 뉴스가치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일탈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부정이나 긍정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평상성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가 일탈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뉴스는 바로 이러한 일탈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된다. 일탈 뉴스(deviant news)는 1800년대 페니 프레스 이래 인간의 관심을 끌어난 가장 큰 뉴스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Wilkins & Patterson, 1987). 이러한 일탈의 개념은 뉴스가치의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일탈의 개념을 바탕으로 뉴스가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2).

그러나 이러한 일탈의 개념은 시민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시민 저널리즘의 영역에서의 뉴스 가치는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존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시민 저널리즘의 목표는 일반 시민을 저널리즘 실천 과정에 적극 동참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실천의 제일 요소라 할 수 있는 참여와 토론(participation and debate)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언론이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언론의 갈등 지향적 뉴스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갈등은 사회 안에서 언제든지 발생하지만 그러한 갈등에 대한 언론의 접근은 문제의 배경을 살피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문제점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이라는 일종의 일탈적 가치는 시민 저널리즘의 환경에서는 빛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된다.

한편 객관성을 저버리는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 양식 또한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Merritt는 시민 저널리즘에서는 언론이 현실 또는 현실 문제로부터 유리되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며 언론의 건강성과 공공생활의 건강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는 것을 강조한다(Merritt & Rosen, 1998). 그는 기자가 자신이 보도한 뉴스 보도의 결과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견해를 버려야 하며 공공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중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주의적 접근 방식과 사회 문제 혹

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언론의 객관적 감시 기능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Shepard, 1994). 결국 기존 저널리즘의 전통적 가치인 객관성에서 탈피해 지나치게 공공의 문제에 개입해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 보도를 하다 보면 언론 본연의 공적 감시전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당면하게 된다. 뉴욕타임즈가 시민 저널리즘을 정통 저널리즘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민 저널리즘의 환경에서는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객관성을 비롯한 다양한 뉴스 가치들이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다양한 미디어들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21세기 언론 환경에서 뉴스가치로서의 객관성의 비중은 과거 매스미디어의 환경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뉴미디어의 환경에서는 지면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매우 다양한 시각이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맞춤형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러한 개인적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독자들의 시각과 일치하는 관점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른바 나만을 위한 신문(Daily Me)과 같이 개인형 맞춤 미디어의 시대에서는 진실과 객관성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가치들에 의해 뉴스가 형성될 것이다.

VI. 나가면서

시민 저널리즘 운동은 실천상의 문제에서부터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러나 참여와 토론을 통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시민 저널리즘의 이상은 미래

의 저널리즘 환경에서도 유효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보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상호 교류와 의사소통이며, 저널리즘의 핵심은 강연과 교육이 아닌 참여와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매스미디어의 환경 속에서 규제, 효율성 그리고 대중이 논의의 대상이었다면, 새로운 미디어의 환경에서는 신뢰, 다양성과 보편성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시민 저널리즘은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탄생하였지만 그 이상과 목표는 21세기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에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day, H. (1999). Public Journalism and the power of the press: exploring the frame setting effects of the new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lazier, T. & Lemert, J. (2000). Public journalism and changes in content of the Seattle Tim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1(3), 69~80.
- Chaffee, S. & M. McDevitt (1999). On evaluating public journalism, in Glasser, T. (ed.) *The Idea of Public Journalism*, pp. 96-17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hoi, Y. (2004). Study examines daily public journalism at six newspaper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5(2):12-27.
- Campaign Study Group (2001). *Journalism Interactive: New Attitudes, Tools and Techniques Change Journalisms Landscape*, Springfield, Virginia.
- Grimes, C.(1997). Whither the Civic Journalism Bandwagon?, in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 2, Issue 3.
- Hall, J. (2001). *Online Journalism: A Critical Primer*. London: Pluto Press.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University of

- Chicago Press.
- Kurpius, D.(2000). "Public Journalism and Commercial Local Television News: In Search of a Model",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 no.2.
- McMillan, S., M. Guppy, W. Kunz and R. Reis (1998).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to editorial content?, in Lambeth, E., P. Meyer and E. Thorson (eds.) *Assessing Public Journalism*, pp.178-90.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Merritt, D. (1997). "Public Journalism, Independence and Civic Capital, Three Ideas in Complete Harmony." in *Mixed News: The Public/Civic/Communitarian Journalism Debate*, Jay Black,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erritt, D. & Rosen, J.(1998). *Imagining Public Journalism: An Editor and Scholar Reflect on the Birth of an Idea*, in *Assessing Public Journalism*, Eds. Edmund B Lambeth, Philip E Meyer and Esther Thors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Columbia and London.
- Outing, S. (2005). *The 11 Layers of Citizen Journalism*. Poynteronline. www.poynter.org/content.
- Richards, I.(2000). *Public Journalism and Ethics*, in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incorporating Culture and Policy*, No 95.
- Robertson, L.(2000). *Whither Journalism Reform?*, in *American Journalism Review*, March 2000, Vol 22, Issue 2.
- Rosen, J., D. Merritt and L. Austin (1997). *Public Journalism Theory and Practice: Lessons from Experience*. Dayton: Kettering Foundations.
- Selber, M. (2001). *Cycles of change: Locating and evaluating the latest journalism reform 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Shepard, A. (1994). *The gospel of public journalism*, *American Journalism Review* 16(7): 30-33.
- Shoemaker, P., Danielian, L. & Breddlinger, N. (1992). *Deviant acts, risky business, and US involvement: The newsworthiness of world events*, *Journalism Quarterly*, 68, 781-795.
- Thames, R.(1998). *Public Journalism and the 1992 Elections*, in *Assessing Public Journalism*, Eds. Edmund B Lambeth, Philip E Meyer and Esther Thors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Columbia and London, 1998, pp 111-122.